

장안빌딩

Chang-A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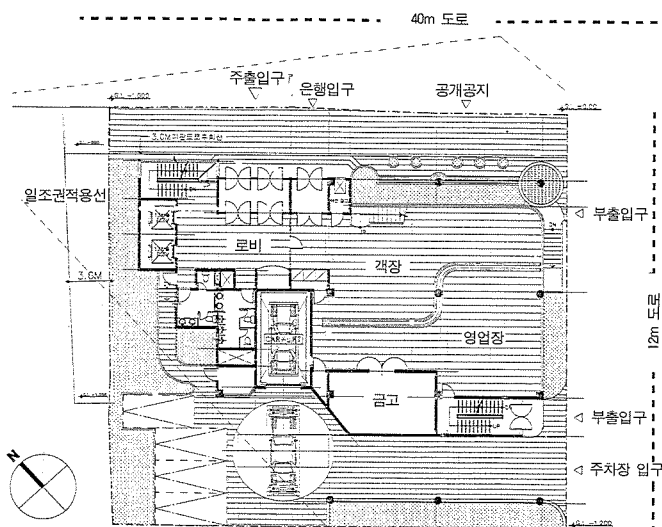
문성운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eong-W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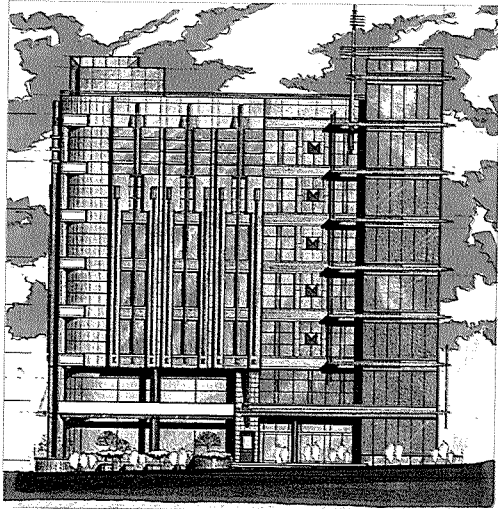
투시도

위치 / 서울 성동구 용답동 119-7의 10필지
 대지면적 / 940.08㎡
 연면적 / 4,994.8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계 / 이종훈, 김영호, 이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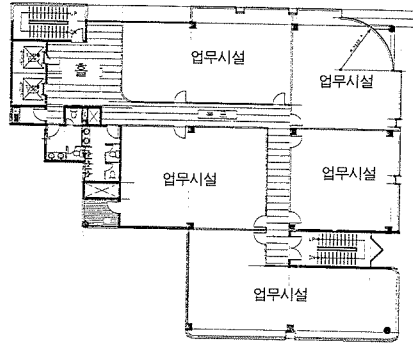
Location / 119-7, Yongdap-dong, Seongdong-gu, Seoul
 Site Area / 940.08㎡
 Gross Floor Area / 4,994.83㎡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District / Business, Neighborhood
 Project Team / Lee Chong-Hoon, Kim Young-Ho & Lee Eun-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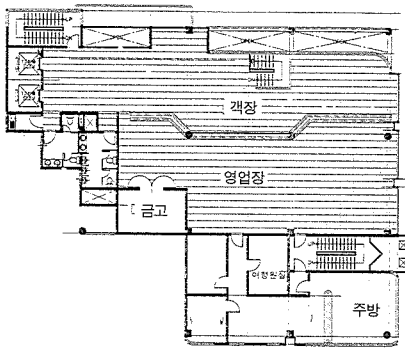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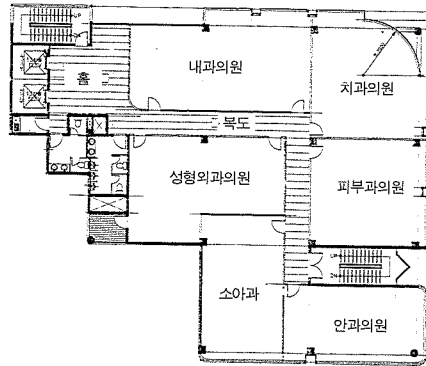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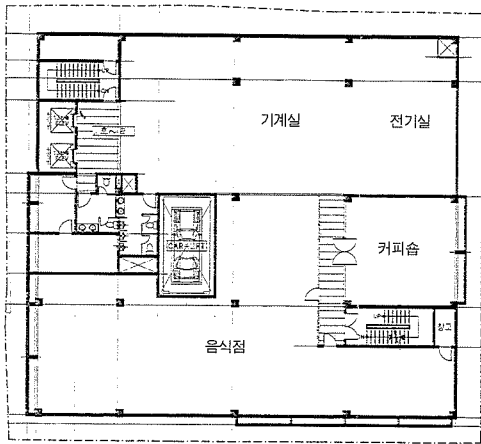
4~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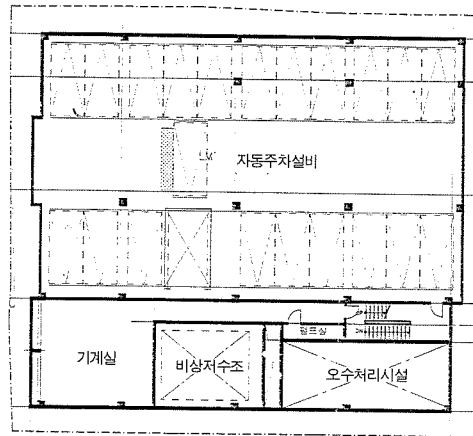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현장을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클래식도 틀었다가 재즈도 틀었다가 요즘 유행하는 가요, 랩... 이것저것 들어본다.

영동 대교를 지날쯤 되어도 마음속에는 방금 전의 현장에 세워 놓아야 할 과중한 숙제의 부담이 쉽게 풀려지질 않는다.

환갑을 지내신 건축주의 확고한 의견과, 지나칠 정도의 고전적인..., 나름대로 의도를 표현해야 될 내 자신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장안평 중교차 매매 시장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주변 환경과 비교할 때 준공 후 건축물은 너무 튀어도 안되고, 너무 처져도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계획 첫 의도였다.

따라서 우선 외장재는 주변 환경과 가장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돌과 유리를 사용하기로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던 클래식으로 풀어 나갔다.

하지만 건축주는 유리와 돌의 사용을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에서 이를 설득하느라 한동안

애를 태웠다.

그곳에 80년대초 강남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타일 건물을 이곳에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하층은 예식장 피로연과 연계되어 식당이 들어오고 1·2층은 은행이 들어선다. 3층은 의원, 그리고 기준층은 업무 시설을 설치하였다.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주변 환경정리와 함께 작지만 충분히 지역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